

손·기 공백? ‘황트리오’가 있잖아

〈홍민〉 〈성용〉

아시안컵 12일 새벽 1시 키르기스스탄과 조별리그 2차전

황의조-황희찬 돌파력·스피드 환상궁합...황인범 중원 조율사

‘(손)홍민이도 없고 (기)성용이도 없고... 하지만 황트리오를 믿어라!’

59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벤투호가 황의조(갑바 오사카)-황희찬(함부르크)-황인범(대전)의 ‘황트리오’를 앞세워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뉴캐슬)이 동시에 빠지는 조별리그 2차전 승리를 노린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7일 필리핀과 2019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해결사’ 황의조의 결승골을 앞세워 1-0 신승을 거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6위의 약체인 필리핀은 5-4-1 전술을 앞세워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대항했다.

태극전사들은 페널티 지역 부근에 9명이 포진한 필리핀의 수비벽을 제대로 뚫지 못해 애를 먹었다. 여기에 세트피스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후반 초반 ‘패스 마스터’ 기성용이 오른쪽 햄스트링 통증으로 빠지면서 더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했다.

벤투 감독은 꼭 막힌 공격의 맥을 뚫기 위해 황인범과 이청용(보훈)을 각각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로 투입하는 전술 변화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특히 이청용은 페널티 지역 오른쪽으로 돌파한 황희찬에게 ‘킬러 패스’를 내줬고, 황희찬의 패스를 받은 황의조의 결승골로 귀중한 승점 3을 챙겼다.

벤투 감독은 오는 12일 오전 1시 펼쳐지는 키르기스스탄과 조별리그 2차전 전술 구상에 들어갔다.

2차전 상대인 키르기스스탄은 FIFA 랭킹 93위

로 피지컬과 압박이 좋은 게 특징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중국과 1차전에서 골키퍼의 편칭 실수에 이은 자책골로 동점을 내준 뒤 결국 역전 골까지 내주며 아쉽게 패했다.

키르기스스탄은 필리핀보다 FIFA 랭킹이 높은 만큼 한국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도 조별리그에서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1-0으로 힘겹게 이겼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와일드카드’ 손흥민이었다. 다만 키르기스스탄전에는 이미 예고된 손흥민 외에도 필리핀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기성용까지 빠진다.

기성용은 A매치 110경기 출장으로 태극전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 경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키커까지 전담하는 벤투호 전술의 핵심 자원이다.

손흥민과 기성용이 모두 빠지는 키르기스스탄전은 태극전사들이 더욱 신중하게 경기를 치러야만 한다. 그래도 손흥민과 기성용의 공백은 ‘황트리오’ 황의조-황희찬-황인범이 든든하게 막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황의조는 설명이 필요 없는 부동의 원톱 스트라이커다. 필리핀전에서는 올해 한국 축구 A매치 1호 골의 주인공이 됐다. 돌파력과 스피드가 뛰어난 황희찬은 황의조의 결승골을 돕는 귀중한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 A매치 8경기에 불과한 황인범은 23살의 젊은 나이에도 중원에서 기성용의 역할을 이어받아 볼 배급과 경기의 템포를 끌어가는 ‘조율사’로 충분히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황의조



황희찬



황인범

박항서호 쓰라린 역전패

베트남, 이라크에 2-3

“역전골을 허용했지만 선수들은 ‘베트남 정신’으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섰습니다.”

말 그대로 ‘졌잘짜’ (졌지만 잘 싸웠다)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0위인 베트남은 2007년 대회 우승팀인 이라크(88위)를 맞아 시종일관 투지를 앞세워 대등한 경기를 펼친 끝에 경기 종료 직전 ‘극장골’을 내주고 안타까운 역전패를 당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8일 열린 이라크와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2-3으로 패했다.

이라크의 일방적인 우세가 점쳐졌지만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우승팀인 베트남은 선제골을 넣는 등 투지를 불살랐다.

웃음 띤 얼굴로 공식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박 감독은 “결과적으로 역전패를 했지만 우리보다 체력이 좋은 이라크 선수들을 상대로 최선의 경기를 펼쳤다”라며 “마지막 역전골은 아쉽지만 수준 높은 이라크와 대등한 경기를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강인, 1군 풀타임 소화

스페인 국왕컵 공격 포인트 못얻어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18)이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1군 무대에서 풀타임 출전하며 임지를 다졌다.

이강인은 9일 스페인 아스투리아스 히혼 엘 몰리논에서 열린 히혼(2부리그)과 대결한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16강 1차전 원정경기에서 2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에 풀타임 활약했다.

공격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날카로운 크로스와 슈팅을 여러 차례 날리며 제 몫을 다했다. 그는 0-0으로 맞선 전반 13분 침투 패스를 받은 뒤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1-1로 맞선 후반 30분엔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경기에서 발렌시아는 1-2로 패했다. 후반 34분 상대 팀 닉 블레이크에게 결승 골을 내준 게 졌다.

/연합뉴스

광주 FC “내가 웃어도 웃는게 아냐”

‘득점왕’ 나상호 부상·빅클럽 리브풀 ... 재정 열악해 ‘돈 싸움’ 불리

광주 FC가 나상호 고민에 빠졌다.

지난 8일 광양 전지훈련지에서 만난 광주 FC 박진섭 감독은 ‘에이스’ 나상호의 이야기가 나오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며 웃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박 감독이다.

‘2018 득점왕’ 나상호는 승격을 올 시즌 목표로 내세운 광주의 특급 자원이다.

하지만 아시안컵 최종 23인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아랍에미리트로 떠났던 나상호는 그러는데 오르지 못한 채 지난 7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훈련 도중 우측 무릎 내측인대 부상을 당했던 나

상호는 정상적인 경기 출전이 어렵다는 벤투 감독의 판단에 따라 조기 귀국을 하게 됐다.

새 시즌을 준비하는 광주에는 가슴 철렁한 에이스의 부상 소식이었다.

박 감독은 “상호에게 전화가 왔는데 쉬었다가 (광양으로) 들어온다고 했다. 나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며 “꼭 쉬게 할 생각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휴식이 필요하다. 날씨가 더 따뜻하니 일본 오кина와로 갈 때 합류하게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상호가)아시안게임 대표도 가서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다”며 “무릎이 여기 있을 때부터 안 좋았다. 우리가 막판에 중요한 경기가 많아서 참고

하려는 게 있었다. 대표팀이 되니까 욕심도 나고, 참고하다 보니 탈이 난 것 같다”고 에이스의 무거운 책임감에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했다.

부상도 부상이지만 박 감독을 고민스럽게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나상호의 달라진 위상이다. 나상호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 K리그 2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줄줄이 따내며 눈길을 끌었다. 당연히 빅클럽과 해외팀에서도 나상호를 주목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는 ‘돈싸움’에서 절대 불리하다. 동기부여라는 속제도 남는다.

박 감독은 “승격을 위해서 나상호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박감독은 “동기부여 부분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

도 구단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해줄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한다. 여러 가지가 걸려있다.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감독이 나상호의 마음을 잡을 카드로 꺼낸 것은 ‘대표팀’이다.

박감독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건 대표팀인 것 같다. 경기를 나가는 선수들이 기회를 더 받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더 좋은 팀에 간다면 좋겠지만, 경쟁해야 하고 경기를 못 뛸 수도 있으니까 상호가 대표팀을 보고 간다면 (광주에 잔류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며 “상위리그보다는 하위리그에서 더 많이 어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대표팀과 전술적인 부분이나 포지션도 비슷하게 있어서 적응하기는 더 쉬울 것 같다”고 나상호를 위한 ‘대표팀’을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연합뉴스

“10명에서 뛰면 안되잖구나” 지난 9일 아시안컵 북한-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0-4로 대패한 북측 선수가 경기 뒤 그라운드에 누워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북한, 사우디에 0-4 충격 대패

체력·전술 열세에 골 점유율 30% ... 13일 카타르와 2차전

북한이 에이스 한광성의 퇴장 속에 2019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참패했다.

북한은 9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막툼 빈 라시드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

전에서 사우디에 0-4로 졌다.

초반부터 밀리며 전반에만 두 골을 허용했고 전반 막판 한광성의 퇴장 이후 수적열세에까지 몰리며 후반에 두 골을 추가로 내줬다. 북한은 첫 경기 완패로 남은 조별리그 경기를 힘겹게 이어가게 됐다.

사우디가 70% 이상의 공 점유율을 가져간 일방적인 경기였다. 슈팅 개수는 사우디가 16개(유효 6개), 북한이 7개(유효 2개)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9위의 북한은 오스트리아 장크트텐의 박광룡을 원톱으로 세우고 이탈리아 2부 리그 페루자에서 뛰고 있는 한광성을 2선에 세운 5-4-1 포메이션으로 사우디(69위)를 상대했다.

초반엔 잘 버텼으나 전반 28분 하만 바흐브리에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내줬다. 사우디는 9분 후 프리킥 상황에서 무함마드 파탈이 오른쪽 발꿈치로

추가골을 만들며 더 달아났다.

마음 급한 북한은 이미 전반 36분 한 차례 경고를 받은 한광성이 전반 44분 데를을 시도하다 또다시 경고를 받아 퇴장 당하는 악재까지 맞았다.

에이스 없이 10명으로 사우디를 상대한 북한은 후반 25분 살림 다우사리에 원발 중거리 슛을 헌납하고 후반 42분 파흐드 무왈라드에도 골을 내주며 힘없이 무너졌다.

북한은 오는 13일 카타르, 18일 레바논과 조별리그 2·3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